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399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6,30-34)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6,30-34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앞의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도 하고 얕은 만남으로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더라면, 약간만 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더라면 더욱 잘 대해 주었을 텐데 하는 반성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쉽게 상대에 대한 판단을 해 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도 듭니다.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그들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 줄 수 있고 아픔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돌보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 함께 걸어 주는 동행이 없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양들처럼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위로가 담긴 따스한 가르침이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 헤아려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금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가엾은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주위 사람들과 내 가족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에게 목자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돌보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양들에게 말입니다.

(수원교구 7월 나눔의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산호세 본당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동안 본당에서 주최하는 신앙학교와 각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앙 교육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레위기 1장-19장

◆ 성경 퀴즈

*다음의 레위기 성경 구절을 읽고, 같이 제시된 신약성서의 말씀을 찾아 () 안에 알맞은 낱말이나 답을 써 넣으시오.

1. 속죄 제물에 대한 규정 : 레위 4,1-5,13 을 읽고, 다음 제시된 성서 구절을 찾아 빈 칸을 채우시오.

요한 1,29 "보라, 세상의 ()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이시다."

히브 9,12-14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 성소로 들어가시어 ()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을 하느님께 바치신 ()은 우리의 양심을 ()에 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1요한 4,10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을 우리 ()를 위한 ()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2.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 레위 11,44와 레위 19,1-2 을 읽고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1테살 4,3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이 되는 것입니다.

1베드 1,15-16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레위 19,18 을 읽고 다음 신약 구절의 빈 칸을 채우시오.

마태 22,36-40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 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르 12,29-31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루카 10,25-28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

◆말씀과 생활 나누기

레위 12,6-8와 루카 2,22-24 을 읽어 봅시다.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 봉헌되며 '빈자(貧者)의 예물'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예물로 봉헌되시는 예수님의 '낮춰지는 겸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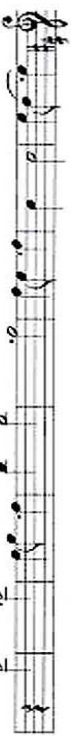
정수
현정
현정
수진



G D Bm G Em A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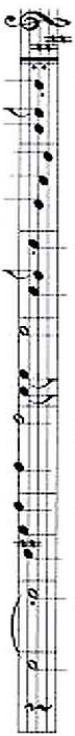
D A Bm G Em A7



G D Em A7 D D7



G D Em A7



G D Em A7 D



G D Em A7 D